

트롯의 전성 시대

이건일 (68 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자신이 고전 음악 애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집에 소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LP 나 CD 들이 거의 다 Mozart, Beethoven, Brahms, Mendelssohn, Schubert, Verdi, Wagner, Puccini 들의 작품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는 유료 사이트인 ODK (On Demand Korea)에서 TV 조선에서 방영되던 ‘미스터 트롯’ 과 ‘미스 트롯 2’ 의 경연 실황과 그 후속으로 나온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등 프로를 보게 되면서 거기에 출연하는 경연대회 우승자들인 top 6 인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와 김희재 들의 노래에 폭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노래는 내가 옛날에 기억하고 있던 그런 뽕짝, 아니 트롯이 아니었다. 노래도 참신 했지만 노래 부르는 방식, 즉 창법이 많이 현대화되었고 많은 노래들이 템포가 빠르고 희망적이거나, 사랑 타령도 훨씬 세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단장의 미아리 고개’ 가사중
‘미아리 눈물고개 임이 넘던 이별 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중략)
십 년이 가도 백 년이 가도
부디 살아만 돌아오세요 네?.....(후략)’ 하던 것이,
오늘날의 ‘신 미아리 고개’ 에서는
‘미아리 눈물 고개 넘어 넘던 이별 고개
아주 오래전에 미아리 고개
울며 불며 매달리던 눈물 고개
오늘날에 현재 미아리 고개
갈테면 가라지 냇두는 고개
내가 뭐 잡을 줄 아니 천만의 만만의 콩떡
여자답게 상냥하게 보내는 거야’
로 바뀌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내가 점점 더 트롯에 빠지게 되었는데 지도 모르겠다. 전에는 트롯 아니 뽕짝이라면 저녁 먹고 들어간 노래방에서 부를 곡 한 두 곡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였다. 아니 나훈아, 남진의 노래 중 한두 곡이나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나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정도는 읊조릴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이제 내가 임영웅이 부르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바람’
영탁이 부르는 ‘막걸리 한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
이찬원의 ‘진또배기’ , 장민호의 ‘7 번 국도’ ‘남자는 말합니다’ 등에 몰입하게 되라고는 상상해본 적이 전혀 없었다.

‘바람’의 가사 중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중략)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 뿐입니다’ 는
내 마음에 크게 와 닿았다.

노래 가사 자체가 아름다운 한편의 시였다.

전에 나훈아가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사만 있으면 곡은 저절로 붙어요.’

그의 말처럼 이런 훌륭한 가사 아니 시를 쓰는 작사자들이 있기에 이런 많은
좋은 곡들이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트롯(영어: Trot)은 대한민국의 음악 장르 중 하나로, 정형화된 반복적인 리듬과 펜타토닉 스케일 음계와 한국 민요의 영향을 받은 떠는 창법이 특징인 장르이다. 또한 트로트는 미국의 춤곡인 폭스트롯(영어: Foxtrot)이 트로트의 어원이며, 기존의 동양 전통 음악과 미국,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음악들이 혼합하여 탄생했다.

1922-30년 사이에는 《사의 찬미》의 윤심덕.

1930년대에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남인수의 《애수의 소야곡》, 황금심의 《알뜰한 당신》, 김정구의 《눈물 젖은 두만강》이 나왔고

1947년에 데뷔한 현인은 《신라의 달밤》을

또 1950대 전쟁 기간 동안은 《전우여 잘 자라》 불렀고,

신세영은 《전선야곡》을 불렀다.

휴전 이후에는 전쟁의 아픔과 실항민의 비애를 그린 현인의 《군세어라 금순아》,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정거장》과 같은 곡이 유행했다.

1957년에는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국의 대표 가수

이미자가 데뷔했으며, 1959년경부터 LP 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최희준, 김상희 등 학사 출신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때 또한 현미의 《밤안개》, 1961년에 한명숙이 발표한

《노란 샤쓰의 사나이》가 크게 인기를 끌었다.

1967년에는 남진이 부른 《가슴 아프게》가 크게 히트했고, 같은 해에는

그의 라이벌이자 후일 국민가수로 불리는 나훈아가 데뷔하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신인 가수였던 남진, 나훈아가 라이벌 2인 체제를 이루어

대한민국 가요계를 주름잡았다. 특히 남진은 팝 스타일과 빠른 템포의 트롯을 선보였으며 나훈아는 정통 트롯을 주로 노래하였다.

1970년대 말에 조용필이라는 대형 가수가 등장하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일편단심 민들레야》 등을 히트시켰다.

이어 여성 가수들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김수희, 심수봉, 주현미가 대표적이다.

주현미는 약사 출신으로 제 2 회 강변가요제로 데뷔하여 《비 내리는 영동교》 《울면서 후회하네》 《눈물의 부르스》 《신사동 그 사람》 등의 히트 곡들이 있다.

1980 년대는 트롯 신예로 떠오른 설운도가 활약한다.
(이상 위키백과에서 인용)

2019 년부터 TV 조선에서 <미스트롯> 과 <미스터트롯>, <미스 트롯 2> 와 KBS 의 <트롯 전국체전>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이 큰 인기를 끌었고 여기에선 선출된 신진 구룡인 탑 6 가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하지만 정통 트롯 계보도 이어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훈아, 남진, 설운도, 주현미, 김용임, 김연자 등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도 탑 6 를 무척 좋아하고 그들의 활동을 열심히 쫓고 있다. 내 생전에 내가 특정 연예인을 좋아해서 소위 말하는 ‘덕질’ 을 해 본 것은 처음이다. ‘덕질’ 이라 해야 그저 매일 밤 그들의 노래나 듣는 정도이고 그들의 실황 콘서트나 생방송에 가보는 것은 엄두도 못내어 보고 코로나 사태로 더욱이 불가능 하니 그저 TV 나 YouTube 로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는 없다.

탑 6 외에 내가 좋아하는 현재 활동중인 기존 가수로는 ‘주현미’ ‘설운도’ ‘금잔디’ 등이 있고 현역에서는 약간 물러서 있는 ‘나훈아’ 가 있다. 그가 작년(2020) 9 월에 그의 콘서트인 ‘대한민국 어게인’ 에서 불렀던 자작 작사, 작곡인 ‘테스형’은 아주 철학적인 내용으로 70 대 중반인 그의 인생의 한 면을 보는 것 같다.

테스형

어찌다가 한바탕 퍽 빠지게 웃는다....(중략)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미스 트롯 경연자 중에 금년 21 세인 미국 코네티컷 출신인 마리아가 있다. 그녀의 한국말은 90% 한국인 수준이고 ‘주현미’가 부른 ‘울면서 후회 하네’를 부르는 그녀의 노래는 TV 로 모습을 보지 않고 노래만 듣는 다면 틀림없이 한국 가수가 노래하는 줄 알 정도 이다. 그녀의 트롯 창법중 하나인 소위 ‘꺾기’와 ‘밀고 당김’은 거의 완벽 하였다.

오죽하면 심사위원 중 하나가 ‘외국인으로서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잘 부르는 노래 이다.’ 라고 칭찬을 했었을까.

울면서 후회하네

노래 주현미, 작사 하늘이, 작곡 안치행

순정을 다바쳐서 믿었던 그사람
사랑의 낙서만 남기고 떠나갔네...(중략)

울면서 후회하네 아~ 스쳐만 지나갈걸
그냥 그대로 있을걸 당신앞에 머뭇거린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후략)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오게 되면 ‘장민호’ 가 부른
‘7 번 국도’ 를 따라 포항에서 강릉까지 차를 몰아 가보려 한다.

7 번국도

노래 장민호 작사, 작곡 미소

아프니까 사랑이랬지 잊으려
애를 쓰니 더 보고 싶더라
7 번국도 바닷길 따라 끝없는 나의 사랑

해 뜨는 정동진에서 뜨겁게 사랑도 했지
가다가 멈추어 보니 그때 그 포장마차
사연 많은 술 한 잔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끼룩끼룩
보고 싶다 사랑아

해 뜨는 간절곶에서 뜨겁게 사랑도 했지
가다가 멈추어 보니 그때 그 포장마차
사연 많은 술 한 잔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끼룩끼룩
보고 싶다 사랑아

올해에는 한국에 가기가 힘들 것 같아 결혼 50주년이 되는 5월 1일에
차로 Santa Barbara 가까이 예약해둔 호텔까지 캘리포니아 1번 도로를
따라 바닷가를 드라이브해 보려 한다.
7 번 국도는 못 가니 펄 대신 닭이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